

## 보도설명자료

(’20. 9. 2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터키와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교역·투자 활성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 중 (서울경제 9.22 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‘13년 우리와 FTA를 체결한 터키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

◇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교역·투자 활성화 방안을 FTA 공동위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\*하고 있음

\* FTA 공동위 : 1차(’14.9월), 2차(’16.12월), 3차(’17.7월), 4차(’19.12월)

\* 한-터 화상 비즈니스 포럼(’20.9월), 한-터 화상 수출입상담회(’20.10월) 등

◇ 9.22일 서울경제 <“터키 FTA 파기 고려 ... 무역협정 곳곳 파열음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### 1. 기사내용

□ 터키는 최근 통상당국 협상에서 한-터키 FTA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한-터키 양국은 ‘13년에 체결한 FTA가 양국간 교역·투자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

- 다만, 터키는 대한민국 무역적자\*를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

\* 규모(억불) : ('14) 60.1 ('15) 54.6 ('16) 46.4 ('17) 53.8 ('18) 47.9 ('19) 41.1

- 또한 터키의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하며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해옴

□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교역·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

- 우선 한-터 FTA 관련, 양국은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\*하여 이행상황 점검 등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,

\* 1차('14.9월, 앙카라), 2차('16.12월, 서울), 3차('17.7월, 앙카라), 4차('19.12월 서울)

- 실무차원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음

- 또한 한-터 화상 비즈니스 포럼(9.22일), 한-터 화상 수출입 상담회(10월 中) 등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교역·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

※ 문의: 윤선영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(044-203-5760)/원미경 사무관(5764)